

Walking with us foundation
10th Annual report

함께 걷는 아이들 10주년 희망 보고서

Walking with us foundation
10th Annual report

발행일 2020년 4월 27일

발행처 함께 걷는 아이들

기획·편집 함께 걷는 아이들

디자인·제작 랄라고고 www.lalagogo.co.kr

이 책에 수록된 모든 글과 이미지는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함께 걷는 아이들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함께 걸어 온



2009-2019 함께 걷는 아이들 10주년
희망 보고서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

0662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23 801호
전화 02.522.7935 팩스 02.522.7930

www.withu.or.kr

www.facebook.com/WalkingWithUs

WalkingWithUs.tistory.com

blog.naver.com/allkidstra1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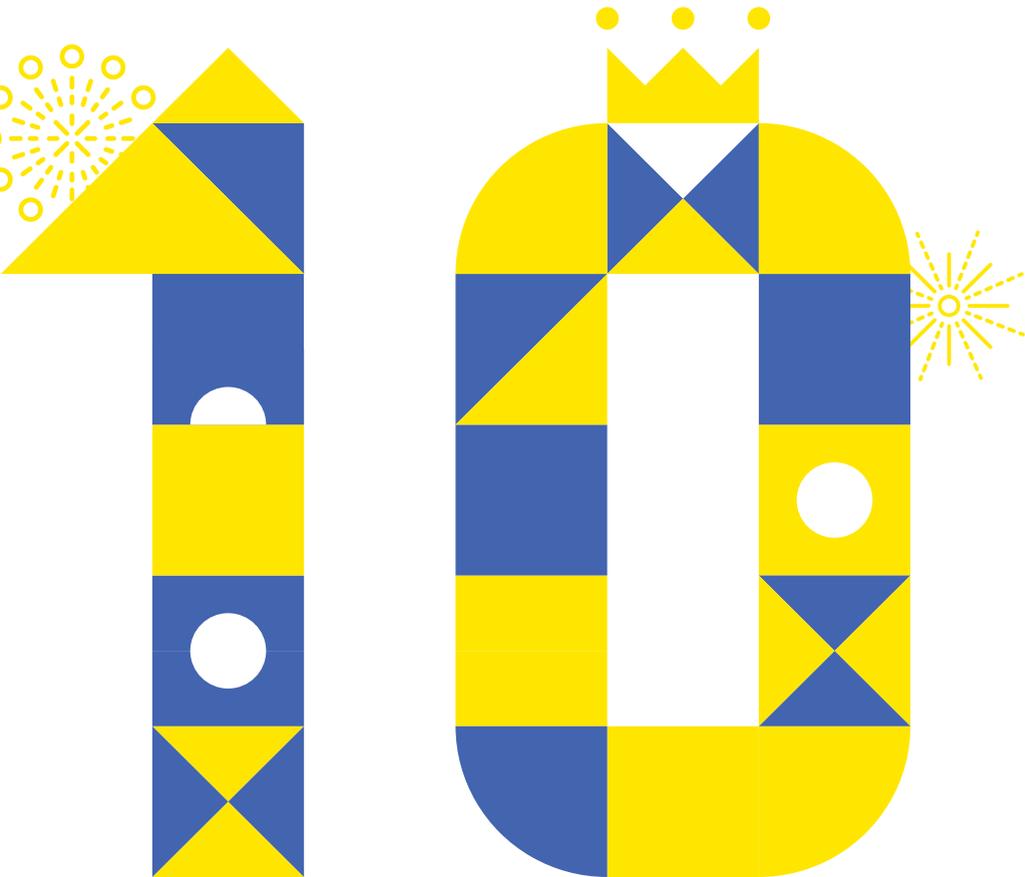
2010년 시작된 함께걷는아이들의 여정은
막막했지만, 설레는 시작이었습니다.

10년 동안의 꾸준한 걸음 속에 함께하는 동행은 늘어났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 길이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오케스트라의 하모니 속에서 음악이 주는 희열을 느끼고
인생의 선생님을 만나 배움의 즐거움과 자신감을 얻고
청소년들은 위기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찾아갑니다.

긴 시간을 함께한 당신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꾸준함의 힘, 함께 걷는 꿈
앞으로도 함께걷는아이들과 동행해주세요.**



함께 걸어 온 10년

2009
-
2019

10주년 기념

시작 6
성장 8
변화 10
성과 12
확장 14
돌아보기 16
인터뷰

올키즈스트라 음악 강사 20
올키즈스트라 졸업생 22
올키즈스터디 슈퍼바이저 24
청소년 지원 현장 활동가 26

2019년 들어다보기

사업 소식

올키즈스트라 28
올키즈스터디 30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32
청소년 자립팜 이상한나라 33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자몽&자몽청 34
청년맞춤제작소 in 오산 36
올키즈기프트 38

대외협력

함께기자단&올키즈봉사단 40
미디어 속 함께걷는아이들 41

재정 보고

감사보고서 42
재무상태표 43
운영성과표 44
지출 내역 45

함께하는 사람들 46

후원

후원자 명단 48
후원 안내 50

이벤트

10주년 이벤트 51

시작

2009

2012

함께걷는아이들의 기틀을 세우다

2010년 첫발을 내디딘 함께걷는아이들은 문화예술, 교육, 청소년 복지 세 가지 축으로 「함께 걷는 아이들 세상」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교육

출발단계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올키즈스터디

잠재능력이 있어도 경제적 어려움, 교육기회 부족으로 기초학습이 부진한 아동에게 3Rs(읽기, 쓰기, 셈하기)를 1:1 맞춤형으로 지도합니다.

교육

- 시범사업 「우리생애 최고의 열공」

2009

- 시범사업 「베토벤 바이러스를 찾아라」

문화예술

모든 아이들이 환경에 상관없이 문화예술을 경험하도록 지원합니다.

올키즈스트라

모든(All) 아이들(Kids)의 오케스트라 (Orchestra)라는 뜻으로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제공합니다.

올키즈기프트

모든 아이들이 마음껏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기부받은 중고 악기와 새 악기를 문화 소외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선물하는 나눔 캠페인입니다.

문화예술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이 바라는 자립을 모색하고 지원합니다.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EXIT 버스를 중심으로, 거리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듭니다.

청소년자립팜 이상한나라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버스에서 만난 18~24세 여자 청소년에게 안정적이며 민주적인 주거 공동체를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얻고 각자의 방식을 존중받으며 자립하도록 지원합니다.

2010 긴급 지원

- 정부 미지원 아동그룹홈 긴급 구호 사업
- 아동 급식 지원사업 결식아동돕기 「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밥상」

2011

- 보조금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사업
- 사례관리 긴급 지원사업
- 거리 청소년 의료 지원사업

2012

- 위기 상황 청소년 사업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시행
- 청소년 평가단 구성 및 평가회 진행

청소년 복지

- 청소년 운영위원회 1기 위촉식
- 해변 아웃리치 심대 기획단 조직 및 활동 운영(~2014)

- 「함께 공부하는 아이들(Study With Us)」 시행
- 올키즈스터디로 사업 명칭 변경

- 「함께 연주하는 아이들 (Music With Us)」 시행
- 사업성과 효과 확인을 위한 평가 시행
- 상위관악단 창단

- 올키즈스트라로 사업 명칭 변경
- 강사교육 시작 및 악기별 커리큘럼 제작
- 평가 체계화(양적 평가, 질적 평가)

성장

함께, 꾸준히, 앞으로 걸어가면 함께걷는아이들의 성장

더 많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실천하고 연구했습니다.

2013 - 2016

연구

2013

- 울키즈사회실천연구소 개소
- 2012년 울키즈스트라 사업성과 보고서 발간

2014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사업의 주요 성공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학습 부진 아동의 성적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ISME(International Society for Music Education) Conference 엘시스테마 세션 발표
- 아동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2015

- 2013~14년 울키즈스트라 사업성과평가보고서 발간
- 2014년 기초학습 지도사업 울키즈스터디 사업성과 및 성공 요인 연구보고서 발간
- 문화소외계층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성공 요인 연구보고서 발간
-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현장 세션 발표

2016

- 2014~15년 울키즈스트라 사업성과평가보고서 발간
- 2015~16년 기초학습 지도사업 울키즈스터디 성과보고서 발간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규모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연구
- 청소년 자립의 대안적 개념 「청소년 자립 밖에서 자립찾기」 연구보고회
- 2016 세계사회복지대회(SWSD 2016) 아동·청소년 분야 발표
-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현장 세션 발표
- ISME Conference 엘시스테마 세션 발표
-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연대 참여

긴급 지원

- 아동 양육 시설 급식비 지원사업 「십시일밥」
-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는 「할머니의 요술램프」

- 「심대 여성 성매매 진입 예방」사업
- 나만의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는 「요술램프」
- 청소년자립패 「이상한나라」 지원사업
- 아동복지시설 실무자 의료비 지원사업 「Caring for Carer」

- 주민참여 문화프로그램(가족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 나만의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는 「요술램프」
- 아동복지시설 실무자 의료비 지원사업 「Caring for Carer」

청소년 복지

- 지역사회 내 유관단체들의 협력으로 「부천시청소년일시센터」 개소
- 안산지역 청소년 단체 네트워크 주최로 거리축제 개최

-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부천 사업 종료 및 신림 오픈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 「416 기억과행동 청소년실천단」 조직(2015~)
-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자몽(自夢)」 시행

-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안산 사업 종료 및 수원 오픈
-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50주년 기념 학술 기획 심포지엄에서 EXIT 버스 사례 발표
- 청소년 지원 현장 활동가 네트워크 「차차모임」 조직

교육

- 중등 학습 지원에서 3Rs 초등 학습 지원으로 전환
- 3Rs 학습 지원 전문 지도교사 양성과정 진행(~2016)

- 기초학습 진단지 개발
- 학습 지도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회 운영
- 울키즈스터디 창작동시대회 「시작(詩作, start)」 및 시상식 개최(~2017)

- 기초학습 슈퍼바이저 양성
- 기초학력 향상 국회 토론회 「우리도 제대로 가르쳐주세요!」 개최

- 참여 아동 학습부진 탈피 및 사후관리 체계화 (수업 종결 피드백 자료 제작)
- 개별화 교육과정 울키즈스터디 수업 모델 적용을 통한 맞춤형 효과 증대

문화예술

- 운영 주체 공모 형태로 전환 및 전국 확대
- 전공 지원사업 시작
- 약기 나눔 캠페인, 울키즈기프트 시작

- 꿈나무반 시행
- 미니 오케스트라 시작(현악 지원)
- 음악 기초이론 교육집 발간

- 관악단 10년 플랜 개발(장기지원, 자립 구조 제시)
- 제1회 울키즈스트라 페스티벌 개최(격년 진행)

- 관악단으로 사업 집중(현악 및 지원사업 종료)
- 울키즈스트라 졸업생이 참여하는 오니관악단 시작
- 찾아가는 음악회 「찾음」 진행
- 울키즈기프트, 우리들의낙원상가와 업무제휴

변화

2017 - 2019

함께걷는아이들이 가져온 변화

함께 연대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슈를 확장했습니다.

연구

- 청소년 심리정서 지원사업, 무엇을 묻고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연구보고회
- 청소년 기본소득 「직접 현금 지급은 청소년의 삶을 어떻게 바꾸나」 연구보고회
- NPO 국제 컨퍼런스 발표
-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4권 학회지 논문 게재

청소년 복지

- 청년 금융 지원사업 「청빛」 시범 운영

교육

- 올키즈스터디 The 탄탄(예비 중학생 기초, 교과 학습 지원사업) 진행

문화예술

- 관악단 자립 활동 지원
- 변화이론(TOC : Theory of Change)을 적용하여 오케스트라 목적, 목표 재정비
- SM엔터테인먼트 후원으로 「Smile Allkids Up」 사업(합창, 밴드, 댄스 지원) 시행
- 올키즈기프트 홈페이지 개설

- 공익 네트워크 「우리는」 참여
-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자몽청(自夢淸)」 시행
-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지원
- 쫓겨온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여
-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버스 리모델링
-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자몽(自夢)」 3주년 기념 책자 「만나보고서」 발간 및 북콘서트 개최

- 개별화 교육과정 매뉴얼 개발
- 올키즈스터디 창작동시대회 「있다! 없다?」 개최 및 웹사이트 오픈(2018~)

- 자립관악단 자립매니저 지원
- SEM(Socially Engaged Musician)네트워크 참여
- 악기 나눔 페스티벌 진행

- 청소년 주거권 연구
- 「그런 자립은 없다 : 곁을 잇고 나로 서는 청소년 현장 이야기」 도서 발간
- SM엔터테인먼트 사회공헌사업인 「Smile Music Festival」 사업성과평가 위탁 진행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시작
- 「청년맞춤제작소 in 오산」 개소

- 올키즈스터디 경력 교사 자전적 글쓰기 교육 진행

- 올투게더(All-Together) 페스티벌에 참여
- 지역관악단 지원 모델 보완 및 적용
- 올키즈기프트 앙상블 악기 지원



성과

2009~2019 지난 10년의 성과

함께걷는아이들은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화예술

믿음과 교감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4천 명을 넘었습니다. 함께걷는아이들의 실무자와 올키즈스트라 음악 강사들도 체계화된 교육 시스템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강사들은 매년 1~2회의 올키즈스트라 음악강사교육을 통해 교수법과 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올키즈스트라 상기관악단 지휘자와 강사들은 격월 강사연구회로 상기관악단 운영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다시 아이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으로 이어졌습니다. 불모지에 심은 음악 교육의 씨앗이 이제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올키즈스트라 누적 데이터 2009~2019

참여 아동 4,034명 / 관악단 연주 활동 490회 / 레슨 26,276시간 / 합주 7,653시간

올키즈기프트 누적 데이터 2013~2019

기부 악기 6,300개 / 나눔 받은 기관 748개소 / 기부자 290명



청소년 복지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과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정책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버스를 통해 위기 상황의 청소년들을 만났고, 청소년이 안전한 공간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소년자립팜 「이상한나라」로 주거 공간과 기본소득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사업 활동가와 현장은 자몽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의 자립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성장했습니다.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누적 데이터 2011~2019

이용 청소년 30,183명 / 사례 지원 청소년 4,225명 / 네트워크 활동 982회

청소년자립팜 이상한나라 누적 데이터 2018~2019

거주 청소년 9명 / 일시 거주 254명 / 개별 상담 811회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자몽&자몽청 누적 데이터 2015~2019

참여 청소년(실인원) 789명 / 참여 기관 41개소



교육

현장의 요구를 이해하고 적합한 모델을 개발·갱신하면서 학습부진 아동 교육에 대한 꾸준한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올키즈스터디 학습 교사는 매월 연구회에서 기초학습에 맞는 적절한 교수법과 다문화·경계선 아동을 이해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교수법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별화 교육과정을 진행하여 아동별 개인차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로 효과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아이가 기초학습부진을 벗어났습니다. 함께걷는아이들은 성적에 상관없이 참교육을 하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올키즈스터디 누적 데이터 2012~2019

참여 아동 1,375명 / 아동 수업 146,183시간 / 창작동시대회 작품 780개



연구

함께걷는아이들의 각 사업이 목표한 내용을 달성했는지 성과평가 연구를 통해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분석 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다시 사업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청소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관점의 다양한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모든 결과는 연구보고서로 공유할 뿐 아니라, 학회, 콘퍼런스, 토론회 등에 발표해 유사 기관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 음악교육 프로그램 성과평가, 기초학습지도 성과평가, 청소년 관련 연구 등 연구보고서 12종 발간
- 청소년 지원 현장의 이야기를 정리한 도서 「그런 자립은 없다」 발간
-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학회 및 콘퍼런스, 토론회 발표 8회
- 국회 토론회 2회 개최
- ISME(International Society for Music Education) Conference 등 국제 콘퍼런스 발표 4회
-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학회지 논문 게재 1회



긴급 지원

급식, 의료, 난방 등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는 「요술램프」, 아동복지시설의 실무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Caring for Carer.」, 방학 기간 동안 아동 양육시설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십시일밥」 외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긴급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원 프로젝트 11개 / 지원 203개소 / 직접 혜택 3,852명



확장

아이들이 살아갈 더 좋은 세상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머물지 않고 노력하는 함께걷는아이들의 활동들 -

문화예술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하는 올키즈스트라

함께걷는아이들은 10년 지원 모델에 따라 지역 관악단이 모금 역량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3개의 관악단이 자립관악단으로서 홀로서기 중입니다.

- 올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
정착기 : 올키즈스트라 양주(3년 차 지원)
성장기 : 올키즈스트라 동해, 올키즈스트라 아산, 올키즈스트라 창원(4년 차 지원)
- 올키즈스트라 자립관악단
올키즈스트라 김해(8년 차 지원), 올키즈스트라 안양·군포, 올키즈스트라 은평(9년 차 지원)



올키즈스트라에서 뻗어가는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

올키즈스트라에서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강사 5명이 모여 사단법인 TAG(Teaching Artist Group)를 창립했습니다. 예술교육을 하는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성장사례를 공유하고, 유용한 콘텐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양한 문화 자원과의 활발한 네트워크

사회참여적음악가네트워크 SEM(이하 SEM) 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적 음악가를 양성하는 부트캠프, 오픈 포럼 등을 진행했습니다. 국내 다양한 얼 시스템마형 오케스트라가 함께 무대에 서고 백건우 피아니스트와 협연하는 「올투게더페스티벌」에 참여했으며, 뉴욕카네기홀과 협업하여 진행한 「엄마의 작은 노래」 프로젝트와 미국 시마노프 오케스트라와 콜라보 연주 등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악기 기부 문화 활성화

2016년부터 우리들의낙원상가와 MOU를 맺어, 기부된 중고 악기 수리를 통해 기부 물품의 품질을 높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악기 나눔 캠페인 운영 경험을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등 기관과 단체에 공유하여 악기 기부 문화 활성화를 이끌었습니다.



교육 환경 변화를 위한 움직임

2015년에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국회 토론회 「우리도 제대로 가르쳐주세요!」를 개최하여 기초학습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교육 당국도 기초 학습 부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청소년 복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선거연령 하향

함께걷는아이들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함께 기자회견과 연대 주최 활동(문화제, 피켓팅, 농성장 지지 방문 및 1일 지킴이)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만 18세 청소년도 선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기상황 청소년의 실질적 자립 실험과 성과

2011년에 시작한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활동으로 위기상황의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현장과 연대하고자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자몽」을 시작했고, 청년 금융 지원사업 「청빛」, 청(소)년주거공간인 「자립팜 이상한나라」, 그리고 「청소년 주거권네트워크」로 발전했습니다.

청소년자립팜 「이상한나라」는 2018년부터 청소년 기본소득을 실험했고, 청소년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 기본소득과 주거권으로 의제를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를 공유하면서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책 반영을 목표로 활동합니다.

사회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않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2016년 2월 출범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연대는 출범 후 정책을 개발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국회에 제안하고 서명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에게 정책을 제안했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이 대폭 강화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특수질환을 앓는 어린이의 병원비는 상당 부분 비급여로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모금에 의존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어린이 병원비는 1년에 100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국가가 보장하는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가 실현될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NPO

2018년 5월, 함께걷는아이들을 비롯한 녹색연합, 생명의숲, 컨선월드와이드, 재단법인 동천, 서울시NPO지원센터가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을 창립하고 함께 운영합니다. NPO의 투명성과 책무성 향상을 위해 「NPO자가진단지표」를 개발하여 공유했으며, 변화하는 제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책을 제안합니다. 「우리는」은 NPO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중소규모의 건강한 NPO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 고자 합니다.



NPO 자가진단표



돌아보기

그때 그 모습

머물지 않고 노력하는 함께걷는아이들의 활동들 -



2010 제1회 올키즈스트라 정기연주회 「올림」

2011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버스 오픈식

2012 올키즈스티디 연합 캠프

2013 올키즈스트라 사업성과 보고서 발간

2015 후원 감사의 밤 「맛있는 함걸아 후원의 맛」

2015 기초학력 향상 국회 토론회 「우리도 제대로 가르쳐주세요!」

2014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해변 아웃리치

2014 올키즈스트라 연합 음악캠프





▶ 2016 서울거리예술축제 「함께 만드는 연주회」 홍보 부스 운영

▶ 2017 올키즈스터디 상위관악단 한강거리페스티벌 연주

▶ 2017 제3회 올키즈스터디 창작동시대회

▶ 2017 올키즈스터디 교사활동 보고회



▶ 만나보고서(現 그런 자립은 없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 2018

▶ 악기 나눔 페스티벌 2018

▶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버스 리모델링 파티 2018

▶ 청소년 참정권 함께 하던 순간 2018



▶ 만나보고서(現 그런 자립은 없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 2018

▶ 악기 나눔 페스티벌 2018

▶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버스 리모델링 파티 2018

▶ 청소년 참정권 함께 하던 순간 2018



최호진



원종재



양은영

올키즈스트라 음악 강사 인터뷰

마음을 맞춰야 만들어지는 앙상블처럼, 타인의 소리를 들으며 조화를 이루는 삶을 배우길

최호진 트럼펫 강사 (올키즈스트라 12년 차)

원종재 타악기 강사 (올키즈스트라 11년 차)

양은영 튜바 강사 (올키즈스트라 11년 차)

Q. 올키즈스트라와 함께 하신지 10년이 넘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원 아이들의 변화를 많이 봐요.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친구가 '선생님 덕분에 악기도 좋아하고 담배도 끊게 됐어요'라고 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반대하시던 부모님들도 정기 연주회를 보시고는 적극 지원하는 부모님으로 바뀌었어요. 역시 열정이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최 상 위 관악단 캠프 때 파트 학생들과 함께 냇가에 발을 담그고 트럼펫 레슨을 했었어요. 그 때의 날씨와 바람의 느낌, 아이들과 소통했던 시간이 기억에 남아요.

양 캠프에 가면 마음을 터놓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느낌이 들죠. 아직도 그 친구들 하고는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요.

Q. 어떤 매력이 함께걷는아이들과 계속 일하게 만들었을까요?

원 일 처리 속도나 결과물이 세련되어 배우고 싶다는 생각

이 들어요. 감각적이기도 하고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 등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최 올키즈스트라를 하면서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인문학 등 음악 외의 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 재단의 실무자들은 음악에 대한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사업의 분야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올키즈스트라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양 소통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강사들끼리도 그렇고 재단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했어요.

Q. 그 동안 올키즈스트라와 강사님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원 전에는 재단이 이끌어 가는 스타일이었다면, 지금은 각 지역의 주도적인 영역이 성장했어요. 지휘자 선생님마다 개성이 있지만 지역의 개성도 같이 드러낼 수 있게 시스템이 바뀐 것 같아서 좋습니다.

최 저는 음악을 실력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래 음악을 하면서 자신감도 붙고, 성격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음악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됐죠. 센터 선생님과 실무자분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변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고마워요.

양 재단에서 꾸준히 강사 교육을 받았어요. 사회복지 마인드, 인문학적 개념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강사의 역할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음악 교육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매너리즘에 빠질 틈이 없도록 공부하면서 스스로 변화하게 됐어요.

Q. 그때 그랬지 하고 회상하는 에피소드는?

원 지금은 타악기가 총분하지만 초창기에는 드럼 하나에 네 명이 붙어서 한 명은 심벌, 한 명은 베이스 드럼 이렇게 세트 드럼을 분해해서 관악합주를 소화했어요. 그때 연주를 들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소리가 났어요. 재밌었습니다.

최 시마노프 클라보레이션 합동 연주를 빼놓을 수가 없죠. 미국 마이애미에 엘시스테마 정신을 기반으로 한 시마노프 오케스트라와 저희 올키즈스트라 상 위 관악단이 우리만의 행사를 진행했는데 언어가 다른데도 8시간 동안 음악으로 소통했어요. 여덟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그 후에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죠.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정말 예상할 수 없구나 했어요.

양 튜바는 초반에 유포농과 함께 레슨을 했어요. 지금은 아이들도 많아지고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 강사님이 따로 계시어요. 교육 체계가 점점 세분화되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Q. 아이들이 올키즈스트라 활동으로 배웠으면 하는 것은?

원 타악기는 재미를 몰라도 몰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연습해서 오케스트라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열정을 쏟아서 음악에 몰입할 때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렇게 음악이 인생의 선물이 되면 좋겠어요. 성인이 돼도 애정을 갖고 악기를 연습하고 연주하면서 평생 함께하는 거죠.

최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앙상블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다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어울리도록 마음을 맞춰야 음악이 만들어져요. 삶도 그렇고요. 우리 친구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면 좋겠습니다.

“ 열정을 쏟아 음악에 몰입하는 즐거움을 알고, 음악이 평생의 선물이 되었으면 ”

양 오케스트라도 작은 사회와 같아요. 아이들이 서로 부딪치면서 얻는 것들로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Q. 함께걷는아이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최 오랫동안 같은 오케스트라에 함께 하다 보니 강사들과 재단 실무자분들의 소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끈끈한 팀워크를 유지하면서도 계속 새롭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 올키즈스트라 음악강사 모집에 지원자가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올키즈스트라도 유명해져서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경쟁하면서 출석률도 올라가면 좋겠고요.

Q. 함께걷는아이들에서 배운 것들을 외부에 전달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원 이름은 TAG(Teaching Artist Group)라고 하는 단체인데, 예술 교육을 하는 강사들의 노하우와 국내의 성공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연구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해요. 저희가 성장한 것처럼 시작하는 강사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고 강사들의 발전이 아이들에게 좋은 작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양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겪어온 문제였으니까요. 음악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됐어요.

Q. 함께걷는아이들이 TAG 설립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원 저희의 성장에 함께걷는아이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함께 걷는아이들의 강사 교육을 통해 저희가 혜택을 받았으니까요. 이런 노하우는 음악 강사를 오래 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고 한 거죠.

양 한 단체에서 오래 보고 소통한 강사들끼리 만드는 단체라서 올키즈스트라가 가장 큰 힘이 된 거 같아요.

Q. 마지막으로 나에게 함께걷는아이들이란?

최 저를 더 높은 성장으로 오를 수 있게 해준 사다리입니다. 10년 동안 많은 것을 깨닫고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양 함께걷는아이들이란 계속 같이 가야 하는 길이에요. 10년을 같이 생활해 왔지만, 앞으로도 무한히 함께 가야 할 길.

원 함께걷는아이들은 저에게 안경이에요. 10년 전에는 어려서 관심사가 악기 연주밖에 없었거든요. 함께걷는아이들이 봐야 할 곳, 알아야 할 것, 생각해야 할 것을 알려줬어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알려준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성장했어요.

올키즈스트라 졸업생 인터뷰

어려운 부분을 천천히 연습하는 것처럼, 시련이 와도 천천히 풀어나갈 거예요



김인규

김인규 올키즈스트라 트럼펫 8년 차

김한규 올키즈스트라 호른 7년 차

Q. 올키즈스트라와 오니관악단을 소개한다면?

인 올키즈스트라는 아이들과 청소년이 참여하는 오케스트라예요. 오니관악단은 올키즈스트라에서 활동하다가 졸업하고 20살 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오케스트라예요. 하지만, 올키즈스트라 출신이 아니라도 참여할 수 있는 동호회 형식의 밴드입니다.

Q. 올키즈스트라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인 초등학교 4학년 때 올키즈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을 봤어요. 그때 악기의 매력에 빠져서 다음 년도에 바로 신청했어요.

한 저희가 쌍둥이인데, 저는 형이 1년 먼저 하는 거 지켜보다가 저도 같이하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Q. 함께걷는아이들이 올해 10주년이 됐어요.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자랑스러웠던 경우가 있었나요?

인 친구들 사이에서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게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해요. 제가 8년 동안 트럼펫을 배우고 연주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해요. 남들은 서보지 못했던 커다란 공연장에서도 공연해봤어요.

한 남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요. 함께걷는아이들 올키즈스트라가 10년이 되면서 저도 10년 정도 나이가 들었다는 건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렇게 장수하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Q. 어떤 무대가 기억에 남나요?

인 한강의 물빛무대요. 배경이 한강이고 되게 예뻐요. 관

객들도 정해진 좌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마당이라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었어요.

한 비보이들과 발레리나도 함께한 연주회가 가장 뿌듯했어요. 가장 오랫동안 준비하고 집중해서 연습했거든요.

Q. 올키즈스트라에서 상위관악단을 거쳐 오니관악단까지 오랜 기간 활동을 한 동기가 있을까요?

한 오케스트라 활동이 그리웠어요.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맞추면 성취감도 얻을 수 있고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인 음악을 계속 하고 싶었어요. 악기를 그만두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Q. 올키즈스트라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인 많은 친구들을 골고루 사귀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아요. 올키즈스트라에서는 모든 사람들과 친해지지는 못했어요. 말을 한 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니관악단 오면서 말 한마디 못했던 형, 누나들이랑 친해지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미리 친해지지 못했을까. 다 좋은 사람들인데.

한 즐거움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배우면서 하나하나 성취하는 즐거움이란 뿌듯함이 크게 느껴졌어요. 수확학원도 일주일째는 재밌잖아요. 그걸 잃지 않으면 수확도, 악기도 재밌게 오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Q. 올키즈스트라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인 별로 생각도 안 해봤고,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에요.

한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키는 더 컸을 거예요. 호른이 무겁거든요. 하하. 대신 표정이 어두웠을 거예요. 원래는 조용하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는데 활동하면서 달라졌어요.

“ 올키즈스트라를 안 했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에요,, ”



김한규

Q. 이번 기회에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나요?

인 저랑 악기를 8년 동안 같이한 지현석 형이요. 오니관악단 에도 그 형 덕분에 오게 되고, 저를 많이 챙겨줘서 고마워요. 선생님 중에서는 제 트럼펫 레슨 선생님 최호진 선생님이요. 제가 지각이랑 결석을 많이 했는데도 저를 끝까지 챙겨주셔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어요.

한 정창욱 선생님이 가장 고마워요. 저도 지각, 결석을 자주 했는데 혼내시지 않으시고 좋게 이야기하셔서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노세진 선생님도 상위밴드를 지휘하시면서 저희를 엄청 챙겨주셨어요. 저희가 지각과 결석을 했을 때 연락처를 가르쳐주시면서 못 나올 때는 자신한테 이야기하라고 저희를 계속 잡아주셨어요.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예요. 두 분 다.

Q. 올키즈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인 친구들은 연예인 보듯 하더라고요. 무대에서 악기를 연주하니까 친구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악기 연습하느라 너무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1년 지나서 공연을 보시고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교통비도 주시고, 연습하러 갈 때는 부모님께서 깨워주시고 열심히 하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한 친구들은 호른을 한다고 하면 그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달팽이 같이 생겼다고 알려줬어요. 어른들은 ‘악기도 다룰 줄 아는구나’라고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악기 가방을 메고 다니면 모르는 분들이 ‘가방이 엄청 크다. 안에 뭐가 들었니? 푹탄 든 거 아니냐?’고 물어보실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악기라고 하면 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해서 뿌듯했어요.

Q. 올키즈스트라를 하면서 달라진 게 있다면요?

인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에서 같이 하는 일들이 좋아요.

혼자하면 빠른 시간 내에 조그만 거 하나 만들 수 있지만 여러 명에서 하면 시간은 더 걸려도 훨씬 큰 걸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곡을 연습할 때 어려운 부분은 느리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원래 템포에 맞출수 있게 연습했어요. 시련이 와도 천천히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한 도전할 때 느끼는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자립을 하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웠어요.

Q. 앞으로 올키즈스트라에게 바라는 것이 있나요?

인 해외 진출이요. 곧 있으면 세계 순회공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 지금도 너무 좋아요. 이 상승 그래프가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Q. 두 분의 꿈은 뭐예요?

인 올키즈스트라를 하면서 많은 악기를 접했어요. 그러다보니 작곡을 해보고 싶어요.

한 제가 받은 사랑과 지원을 나눠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Q. 나에게 함께걷는아이들이란?

한 소금 같은 존재요. 아이들에게 소금 같은 조력자가 돼서 더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존재인 거 같아요.

인 북두칠성이요. 옛날 사람들은 밤에는 북두칠성을 보고 길을 찾았잖아요.



조소영

울키즈스터디 슈퍼바이저 인터뷰

기피하던 수업이 아이들이 참여하고 싶은 수업으로 변했어요



홍영숙

조소영 슈퍼바이저 6년 차(울키즈스터디 9년 차)

이훈주 슈퍼바이저 5년 차(울키즈스터디 9년 차)

홍영숙 슈퍼바이저 6년 차(울키즈스터디 9년 차)

Q. 슈퍼바이저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홍 슈퍼바이저는 교사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해요. 더 잘 가르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일이지요. 교사연구회를 진행하는 일이 대표적이예요. 개별화 교육과정에 따라 각 수업이 잘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하기도 하고요.

Q.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홍 아직 덧셈, 뺄셈을 잘 못하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만났던 일이예요. 체격이 큰데도 자신감 없이 눈을 내리깔고 다녔어요. 알고 보니 단순히 학습부진 아동이 아니라 '경계선 아동(지능 지수 70~85 사이의 아동. 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동으로 전체 인구의 12~14%를 차지한다.)'이었던 거죠. 그 아이를 지도했는데,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더니 구구단을 외우고 곱셈까지 하

게 됐어요. 기관에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 일로 상황이 더 안 좋은 아이를 만나도 항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그 아이가 항상 기억에 남아요.

이 저희가 보통 6개월 동안 가르치고 8월에 동시 대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 아이는 6개월 동안 고개만 숙이고 다니고, 웃거나 대답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다 8월 시상식에 참가하러 가기 전에 동기부여 프로그램으로 패밀리 레스토랑에 외식을 하러 갔어요. 뷔페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걸 알아서 먹게 했죠. 그런데 그 아이는 계속 아이스크림만 뽑아 먹는 거예요. 골고루 먹게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서로 깔깔거리면서 이야기하고 마음껏 먹다가 시상식에 갔어요. 시상식도 재단분들이 백설공주, 동물 등으로 분장해서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쓴 시가 담긴 책을 받고 돌아간 후 그 아이가 극적으로 변한 거예요. 수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생각을 조금씩 말하더니 학습 성취도가 급격히 빨라졌어요.

아이들에게 동기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어요. 그 아이의 변화가 정말 감동스러웠죠.

조 기관이 한 아이를 수업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게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씩 발전하더니 받침이 없는 한글 정도는 읽을 수 있게 됐고요. 수업 끝나고 몇 개월 있다가 복지사 선생님이 아이가 동화책을 읽는 동영상 보내주셨어요. 더듬더듬 읽는 모습이었지만 너무 대견한 거예요. 아이들은 한글을 배우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거든요.

Q. 함께걷는아이들 10주년 소감은?

홍 함께걷는아이들에게 감사드려요. 정부 보조가 하나도 없고 전부 후원금이거든요. 후원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 하더라고요. 다른 하나는, 함께걷는아이들과 일할 때 수평 관계에서 일하다 보니 아이들도 수평 관계로 대하게 돼요. 슈퍼바이저의 입장이지만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동등하게 대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관계가 전파되는 것 같아요.

이 세세하게 단계를 밟아서 계획을 짜고 준비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 사업이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정말 필요하지만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라서 좋아요. 많이 배우고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조 '우와~ 벌써 10주년이다' 이런 느낌이네요! 저도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가장 커요.

Q. 초창기의 함께걷는아이들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조 2012년 울키즈스터디 사업을 할 때는 다른 곳에서 나온 교재를 활용해서 지도했는데 어떻게 쓸지도 잘 몰랐어요. 사업이 진행되면서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새로 들어오는 선생님들에게 체계적인 도움이 돼요. 처음에는 없었던 것들을 함께 힘을 모아 하나하나 만들어갔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홍 처음에는 아이들이 '우리는 공부를 못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제 평택 기관을 담당하시는 분 말씀이 '우리 아이들은 함께걷는아이들 수업을 그렇게 좋아해요. 들어오고 싶은 아이들이 많아요'라는 거예요. 기피 대상이었던 수업이 아이들이 참여하고 싶은 수업으로 바뀌었어요. 아이들의 긍정적 변화가 가장 큰 변화예요.

“우리 아이들은 선인장 같아요. 어렵긴 해도 꽃을 피우면 정말 예쁘거든요,,”

이 수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아이들과 복지사 선생님, 재단, 저희 선생님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중에서 보호자가 빠졌어요. 보호자가 잘해줘야 아이들이 바뀐다고만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보호자들이 변화하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관심 없어 하던 분들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논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Q. 함께걷는아이들을 만나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 처음에는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리하지?'라는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좋은 수업을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홍 시야가 넓어지고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아이들을 대하는 것 외에 사회적인 참여도 해요. 전에는 앞만 보고 갔다면 이제는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고요. 마음이 넓어졌다고 느껴요.

Q. 앞으로 함께걷는아이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홍 지금은 초등 수업만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사업 목적인 기초 부진을 탈피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다시 교과 부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맡았던 아이들이 끝까지 교과 부진을 벗어나게 하고 싶어요. 재정이 한정되어 있지만 그런 바람이에요.

조 저희 사업이 기초학습의 구심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공교육의 테두리 밖에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갔으면 해요. 10년 동안의 콘텐츠와 인적 자원들이 하나의 구심점이 돼서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Q. 나에게 함께걷는아이들이란?

홍 희망의 전파사? 무기력하고 자존감 낮았던 아이들이 조금씩 자아가 살아나는 걸 느끼거든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을 거쳐서 차분히 전파된 거죠.

이 저에게는 비타민이에요. 이 일이 힘들다가보다 재미있고 행복해요.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꽃을 잘 피우는 꽃나무가 아니라 선인장과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선인장이 꽃을 피우면 정말 예쁘거든요.

조 콩나물에 물 주기. 콩나물에 매일매일 주는 물이 밑으로 다 빠져서 제대로 클 수 있을까 의심이 들지만 어느새 싹씩 자라났거든요. 울키즈스터디 사업은 콩나물에 물주기처럼 아이들을 조금씩 성장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청소년 지원 현장 활동가 인터뷰

내일만 고민하던 생활에서 미래를 계획하는 삶으로의 변화

황인성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버스 활동가 7년 차
한 날 청소년자립팜 이상한나라 활동가 2년 차



황인성

Q. 함께걷는아이들과 활동하신 계기는?

황 2011년에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이하 엑시트) 자원활동가로 시작했는데, 엑시트 활동가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이신 거예요. 함께 일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와서 일하게 됐습니다.

한 황인성 선생님이 엑시트를 하시면서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도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자몽」에 참여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이야기하니깐 궁금했죠. ‘도대체 뭐가 있길래? 나도 한번 겪어 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자립팜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Q.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 자립팜은 퇴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출국을 했다고 해요. ‘이상한 나라’니까. 언젠가 출국을 응원하는 자리에서 한 출국 앨리스가 ‘NH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러 사람들의 덕택에 안정적인 집을 찾았으니 엑시트나 자립팜의 청소년 중 긴급하게 주거가 필요한 사람에게 2주 동안 방한 칸을 내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활동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로 지켜주는 사람들의 결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황 한 청소년분이 일을 하시다가 돈을 못 받게 됐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떼인 돈을 받아 보자고 했죠. 시급을 계산하고, 자료를 모아서 사장한테 얘기하고 노동부에도 신고해서 결국 돈을 받았어요. 이후로 그 청소년분과 함께 노동법도 공부하고 노동 강의도 들었어요. 비슷한 처지의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그분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청소년분들을 저희에게 소개해주면서 ‘이분들 믿을만



한 날

한 분들이야’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활동가를 신뢰하게 된 거죠.

Q. 힘을 모아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한 경험이 있나요?

한 청소년들이 잘 수 있는 집, 그러면서도 나답게 살 수 있는 편안한 주거공간이 필요했어요. 상상으로만 갖고 있던 꿈이 함께걷는아이들과 만나서 현실이 됐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밤 여덟 시든 아홉 시든 전화를 거는데 활동가들이 자기 시간을 흔쾌히 내어줘요. 근무 시간이 끝난다고 청

소년들의 삶의 시간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직업이고 일이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Q. 함께걷는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즐거운 점은?

황 함께걷는아이들의 교육에서 배운 것들을 현장에 반영하고 청소년분들에게 좋았다는 피드백을 받을 때가 즐겁죠.

한 「자몽」 프로젝트로 함께걷는아이들과 같이 하는 순간은 늘 의미였어요. 그 당시 저는 인권교육센터 「틀」의 활동가로 「자몽」 교육과 네트워크, 그리고 자몽 사업 모니터링을 담당했거든요. 보통 재단은 후원 현장을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활동하지 직접 깊숙이 다가와서 모든 활동을 같이하지는 않거든요. 현장의 자리에 늘 함께걷는아이들이 있었어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며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그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죠. 자몽을 시작할 때 사업 이름이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자몽」이었어요. ‘위기 청소년’이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비행 청소년을 상상할 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올라봐 고민이 많았어요. 함께걷는아이들도 그 고민을 함께해 주셔서 사업 이름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뺐어요. 이후에는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자몽」이라고 이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게 2015년인데 지금은 함께걷는아이들과 함께 청소년 주거권을 논하고 있어요.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에게 인간다운 집이 필요하다고 속고한 결과죠. 함께걷는아이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도전이었어요.

Q. 청소년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황 정책,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가 먼저예요.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청소년 당사자한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 이제는 청소년 주거권과 기본소득 같은 사회적 제도들을 시작해야죠. 가정이 있는 청소년도 보호자의 지원이 없으면 경제적 빈곤에 휩싸이게 되고 신분이 불안정하게 되거든요. 일터에서도 청소년의 위치는 불합리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크고요.

Q. 활동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한 함께걷는아이들의 지원을 받아 2018년부터 진행한 자립팜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자립팜에 머물고 있는 앨리스(자립팜 임시 거주 청소년)들에게 자격, 조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어떤 증빙도 받지 않고 매월 1일 무조건 3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2년 동안 운영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의

구심을 품었을 것 같아요. ‘청소년에게 그 돈을? 어디에 쓸 줄 알고?’ 하지만 청소년에게는 예측 가능한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 삶을 계획할 가능성을 높여줘요. 내일만 고민하던 삶이 미래를 계획하는 삶으로 변화하는 거죠. 다른 현장 기관들에서 기본소득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책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 처음에는 비청소년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실패하고 거절당한 경험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지속적인 활동이 쌓이다 보니 믿을 만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어요. 청소년분들에게 신뢰가 쌓여 가는 것 같아 좋습니다.

Q. 함께걷는아이들 10주년입니다. 개인적인 소감은?

황 벌써 10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언제나 든든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걷는아이들 파이팅!

한 앞으로도 활동 분야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10년도 기대할게요!

Q. 앞으로 함께걷는아이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한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든든해요. 그리고 내년에도 청소년 기본소득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황 저희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함께 고민할 때 고맙고 감사하거든요. 이런 순간들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Q. 나에게 함께걷는아이들은 OO이다?

한 함께걷는아이들은 ‘개꿀개이득’이다. 지원기관과 현장이 이렇게 스윗할 수가 없어 개꿀이예요. 마음이 맞고 언제든지 상의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바로 전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기본소득과 같은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사업을 지원해주는 곳은 없거든요. 현장 입장에서 영수증 증빙도 불가능한 사업을 흔쾌히 지원해 주니 개이득인 거죠.

황 함께걷는아이들은 ‘엑시트 절친’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제는 청소년 주거권과 기본소득 같은 사회적 제도들을 시작해야죠.**”



모든(All) 아이들(Kids)의 오케스트라(Orchestra)라는 뜻으로
문화예술 교육 기회가 적은 아이들에게
음악교육(그룹 레슨과 합주, 악기 지원, 다양한 연주 경험 등)을 제공합니다.

▲ 음악으로 하나 되는 특별한 경험으로 더 큰 가능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은 미국 마이애미에서 온 요소이 시마노프 오케스트라와 함께 콜라보 연주회를 진행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음악으로 하나 되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10월 12일에는 제3회 올키즈스트라 페스티벌이 열려 전국 모든 올키즈스트라가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 모였습니다. 관악단별 연주 무대로 실력을 뽐내고 합동 연주로 영화 국가대표 OST 'Butterfly'를 연주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네트워크 파티로 각 관악단에서 운영하는 부스에 방문해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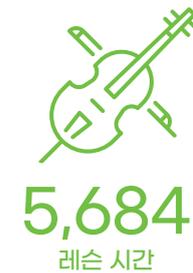
▲ 지역관악단 지원 모델을 새롭게 보완하고 적용했습니다.

올키즈스트라는 더욱 정교화된 모델로 지역관악단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시기별(4단계, 10차) 주력 목표와 과제를 정비하고, 다음 시기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진행하는 질적 평가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건강한 자립을 향해 나아가도록 단계별 모금 교육 및 과제를 마련하고 실행했습니다. 2019년 관악단 평가에 새로운 모델을 반영하여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 SEM 네트워크 활동으로 '음악을 통한 사회의 긍정적 변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SEM 네트워크는 음악가들이 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다양한 활동을 도모했습니다. 뉴욕카네기홀과 협업하여 진행한 '엄마의 작은 노래' 프로젝트로 엄마와 아이의 정서적 교감과 건강한 성장을 도왔습니다. 국내 엘시스테마형 오케스트라들이 함께하는 '올투게더페스티벌'에도 참여했습니다.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을 비롯한 여러 오케스트라가 각자의 무대를 선보이고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윌슨 응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도 가졌습니다. 함께걷는아이들은 SEM 네트워크 주요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 과정에 함께하며 음악을 통한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했습니다.



* 상위관악단, 안양·군포, 은평관악단 중복 활동 강사, 파트별 중복 지도 제외 실인원은 63명



잠재능력이 있어도 경제적 어려움, 교육기회 부족으로 기초학습이 부진한 아동에게 3Rs(읽기, 쓰기, 셈하기)를 1:1 맞춤형으로 지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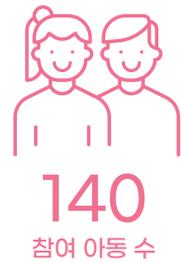
▲ 개별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촘촘하고 안정적인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키즈스터디는 아동별 개인차와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도 효과를 높이는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학습목표 및 교재, 학습 전략 매뉴얼을 기반으로, 교사가 개별 아동의 초기 학습 수준에 따라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슈퍼바이저와 중간평가, 최종평가 및 피드백 과정을 가졌습니다. 11개월간의 학습으로 아동의 기초학습 능력이 쑥쑥 향상되었습니다.



▲ 교사연구회로 학습지도에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올키즈스터디 교사들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교사연구회에서 4개 조로 나뉘어 기초학습 지도에 유용한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국어, 수학 교과서의 변동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봄과 교과과정의 학습 전반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기초 국어, 수학 학습영역 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 교사가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연구하고 실제 수업사례를 공유했습니다.



▲ 올키즈스터디 교사 교육 경험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넘어질 걸 두려워하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수 없듯이, 틀릴 것을 두려워하면 정답을 쓸 수 없다. 그러나 아이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전거에 올라탔다. 비록 올라타자마자 넘어지길 반복했지만 다시 용기 내어 올라탔다. 내 눈에 비친 아이는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다.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 상처받지 않고, 기죽지 않고, 리더라든 당당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나길 바라본다.”

강나혜 교사 - 당당하게 틀려라 中

다년간 올키즈스터디 교사로 활동한 교사, 슈퍼바이저, 실무자가 올키즈스터디 교육경험에 기반한 자전적 글쓰기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월별 주제에 따른 글쓰기 및 글 나눔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글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 정리했습니다.

12월 17일, 모든 교사가 함께 모여 한 해의 교사 활동을 공유하는 교사 활동 보고회에서는 교사별 대표 작을 낭독으로 생생하게 전해 듣고, 소감을 나누며 우리 모두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 제5회 올키즈스터디 창작동시대회 「있다! 없다?」를 운영했습니다.

올키즈스터디 참여 아동은 「나에게는 [] (이/가) 있다! 없다?」를 주제로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을 동시에 표현해보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총 119선의 작품에는 나에게 소중한 것, 즐거운 것, 꿈꾸는 것 등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과 동심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많은 이들이 아이들의 생각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활발히 운영할 예정입니다. www.allkidspoem.or.kr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버스를 중심으로, 거리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위기 상황에 함께 대처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듭니다.

▲ 청소년들과 공적 영역의 복지제도 활용을 시도했습니다.

위기 상황 청소년 다수는 심각한 빈곤 상황에 놓여있지만, 정보 접근성이 매우 낮아 어떤 지원을 어디서 요구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게 되더라도 신청하는 과정이 어렵고 복잡해서 시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청소년 그룹홈」, 「소년소녀가정전세주택지원」, 「청년매입임대주택지원」,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 「청소년 자립지원관」 등의 복지제도 신청을 시도했습니다.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지난했고, 제도는 중첩된 위기상황을 겪는 청소년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위기 상황 청소년들이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는 적고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시도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고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 청소년 일 경험을 위한 인턴십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유관기관과 청소년 인턴십을 함께 했습니다. 위기 상황 청소년들에게 집만큼이나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보호자 동의서, 최저임금, 모욕적인 노동 현장 등 모든 것이 장벽인 청소년에게 인턴십 사업은 매력적이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청소년들은 인턴십에 참여해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유관기관을 통한 인턴십 외에도 다양한 일을 경험할 기회가 필요하며,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1,029
버스 이용 청소년 수
(누적)



2,400
사례관리 청소년 수



30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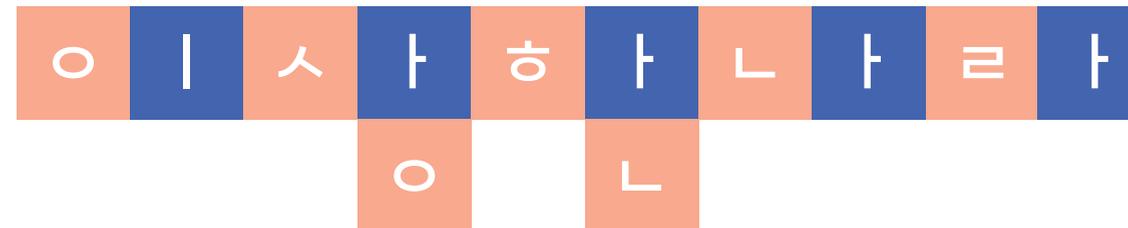


530
활동가 수



26
네트워크 활동 기관 수

청소년 자립팜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버스에서 만난 18~24세 여자 청소년에게 안정적이며 민주적인 주거 공동체를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얻고 각자의 방식을 존중받으며 자립하도록 지원합니다.

▲ 청소년 주거권 운동을 제안하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상한나라」 출국 이후에도 여전히 위기적 상황을 겪는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이 자립팜과 엑시트에 찾아옵니다. 소득 활동 기회로부터 멀어지거나 작업 대출 위험 등 여러 어려움으로 아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된 내 집을 가져야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마련되는 중요성을 알기에 「이상한나라」에서는 필연적으로 청소년 주거권 운동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주거권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담론을 모으고 청소년 주거 관련 법과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2020년 초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일년 동안의 활동으로 네트워크는 더욱 단단해지고,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는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9
거주 청소년 수



328
개별 상담 횟수



21
출국(퇴소) 청소년
지원 수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다양한 위기를 겪는 청소년의 욕구와 개인의 삶의 경험을 존중한 자립 프로그램과 청소년을 만나는 활동가 교육 및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 자몽, 자몽청의 각 사업이 내실화, 안정화되었습니다.

인권교육센터 '들'의 몽실팀과 그들이 진행한 교육 중에 만난 활동가들은 같은 관점으로 함께 고민하며 청소년 지원 현장의 과제를 모색했습니다. 자몽 및 자몽청 사업을 지속한 단체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며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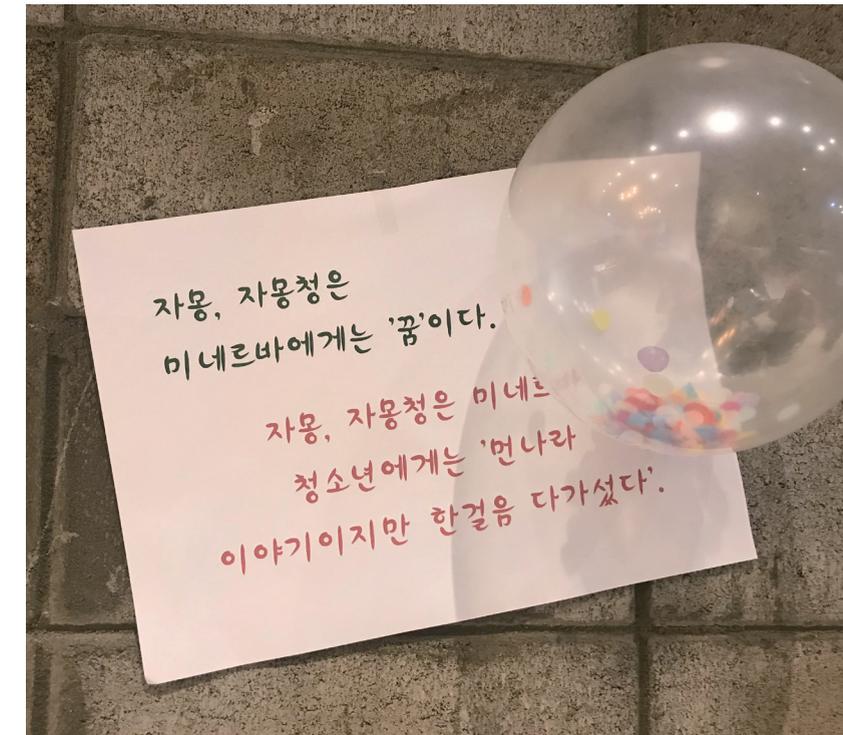


자몽 사업들이 사회로의 확산을 시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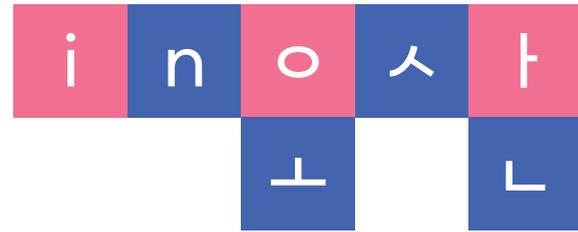
2018년도에 발행된 「만나보고서」가 「그런 자립은 없다」로 재출간되면서 청소년 자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공유하고, 고민하는 이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3년 동안 참여한 자몽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평등의 연구발표 「청소년 성소수자의 탈가정 경험 및 욕구 조사」를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삶과 자립, 주거 고민을 사회와 소통하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자립팜 「이상한나라」는 「청소년 존엄을 말하는 두 가지 방식 : 기본소득, 주거권 토론회」에서 자몽 사업으로 시도한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에 청소년 지원의 한계와 방향을 나눴습니다.

자몽청 사업의 장기 방향을 설정하며 「청소년 주거권 운동」의 사회적 이슈화를 위한 담론을 형성했습니다.

자몽에서 자몽청으로 그리고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활동으로 발전하며, 능동적으로 함께 하는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개별 기관을 위한 지원사업을 넘어 청소년들이 살아갈 사회 변화를 꾀하는 활동으로 확대되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활동으로 청소년을 향한 모순이 우리 사회에 만연함을 확인했고, 청소년 '보호'에서 '권리'로 요구와 주장을 확대하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청소년 존엄을 말하는 두 가지 방식 : 기본소득, 주거권 토론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주거 지원 한계를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청소년 주거권 운동」의 사회적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청년맞춤제작소



청년맞춤제작소는 청년과 함께 만드는 문화 장소이자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여 각 청년이 꿈꾸는 자리를 돕습니다.

▲ 함께하는 자리를 꿈꾸며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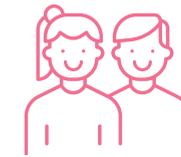
2019년 5월, 함께걷는아이들과 청년재단, 오산시가 만나 청년이 겪는 어려움을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며 고민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다양한 자립 방식을 시도하고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청년맞춤제작소 in 오산」을 개소했습니다. 개소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청년들의 맞춤형 자립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을 모색했습니다.

▲ 원하는 바를 주체적으로 시도하도록 청년 맞춤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21명은 다양한 방식의 진로와 자리를 꿈꾸며, 삶의 질 향상 지원(식사비 지원)을 시작으로 주도적으로 계획한 욕구를 하나하나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채로 인한 금융상담, 심리상담, 창업 관련 전문가 멘토링, 교육 훈련 지원 등을 진행하며 청년들이 자신의 삶에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함께했습니다.

▲ 함께하는 자리를 시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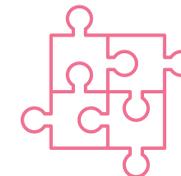
참여하는 청년들이 혼자가 아닌 함께 자리를 고민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조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청년들과 매월 1회, 다양한 주제로 자립 노하우와 지지 기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12월 자조 모임에서는 2019년을 함께 마무리하고 2020년을 함께 시작하며 서로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21
참여 청년 수



57
개별 지원 사례 수
(누적)



18
네트워크 활동 수



6
공간 운영 활성화 수



▲ 「청년맞춤제작소 in 오산」이 시작하기까지

- 청년 사업 추진 논의, 사업계획 접수·심사 (5월)
- 사업 최종 선정(청년재단-오산시-함께걷는아이들 협약) (6월)
- 청년 공간 세팅 (7~10월)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교육 및 슈퍼비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인테리어 관련 회의 및 인테리어 공사 진행, 사업 방향과 가치 논의를 위한 워크숍, 사업자문, 직원교육, 오산시 청년정책 관계자 회의, 청년재단 O.T
- 「청년맞춤제작소 in 오산」 개소식 「청년들의 독립선언」 (10.14)
- 청년맞춤형지원사업 청년 모집 및 선정 (9~10월, 12월)
- 청년 직접 지원 활동 (10~12월)
심층 상담 및 프로그램 계획, 청년 식사 카드 발급 및 식사비 지원, 청년 맞춤 지원(교육 신청, 진로 고민, 창업 관련 전문가 멘토링, 금융 상담, 자격증 및 학원비 지원 등), 자조 모임
- 네트워크 활동 (8~12월)
의료 지원(경기도의료원 임승관 원장), 주거 지원(경기남부청소년자립관, SH실무자), 취업 및 진로 상담 지원(오산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잡스 일자리카페), 심리상담 지원(전문 상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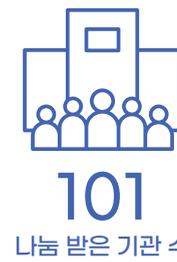
모든 아이들이 마음껏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기부받은 중고 악기와 새 악기를 문화 소외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선물하는
나눔 캠페인입니다.

▲ 올키즈기프트 앙상블팀 악기 지원을 시도했습니다

올키즈기프트의 오랜 파트너인 우리들의낙원상가는 매년 일정 금액의 새 악기를 기부하여 아이들의 음악교육을 지원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앙상블팀을 운영하고 싶지만 악기가 없어서 시도하지 못한 기관에게 신청 악기 일체를 지원하는 「올키즈기프트 앙상블팀 악기 지원」으로 기부의 의미를 확장했습니다. 총 3개 기관에서 약 30여 명의 아이들이 악기를 지원받아 즐거운 음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 실력이 성장한 후에는 우리들의낙원상가와 함께걷는아이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초청되어 그 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영구 지원되는 악기로 음악교육 첫발을 내디딘 3개 기관의 음악적 성장을 기대합니다.

▲ 다양한 후원자와 단체 및 기관에서 참여했습니다

가수 팬클럽에서 참여한 악기 후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2019년에는 가수 정용화 팬클럽과 기타리스트 및 싱어송라이터 적재 팬클럽인 「적재학부모회」에서 악기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팬클럽 기부는 최근 기부 트렌드로, 악기 기부가 팬클럽이 선호하는 후원 방식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피아니스트 서주희 님이 독주회 수익금으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선물했으며,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어쿠스틱 동아리 「플루토」는 올키즈기프트 취지에 공감하여 교내외에 올키즈기프트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 올키즈기프트 웹사이트가 활성화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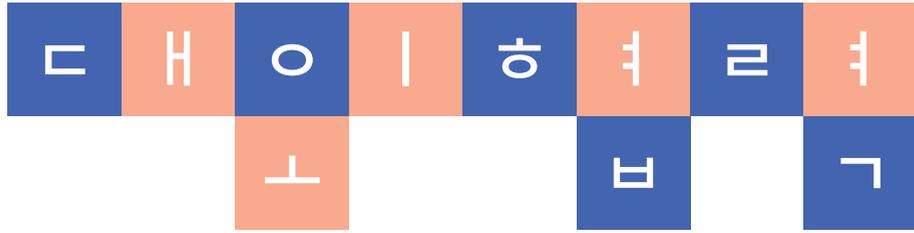
올키즈기프트 웹사이트 활성화로 일반 기부 106건 중 54건(50.9%)이 사이트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기부회원 유입경로의 50% 이상이 온라인에 게재된 글이나 기사를 통해 올키즈기프트를 알게 되었고 참여로 연결되었습니다.

2019 기부회원 유입경로 설문 응답



2019 최다 기부 악기 TOP 3





함께기자단

함께기자단은 함께걷는아이들의 프로그램과 행사 현장을 취재해 블로그 기사를 작성하고, 문화 소외아동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과 청소년 자립 등의 주제로 기획 기사를 작성합니다. 2019년에는 함께기자단 8명과 명예기자(함께기자단 2기 출신의 멘토 그룹) 2명이 함께 했습니다.

주요 활동

- 기획 회의(매월 1회) : 취재 및 기사 작성 현황을 나누고 활동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진행(총 5회)
- 명예 기자 모임 : 전년도 기자단 활동 평가 및 기자단 활동 기획, 개선사항 제안, 멘토링 방안 논의(총 2회)
- 발대식(5.11) : 함께걷는아이들과 함께기자단 활동을 이해하는 시간, 명예 기자 Tip 공유 및 친목 활동
- MT(6.28~29) : 글쓰기 교육, 바비큐 파티, 레크리에이션, 7월 기획 회의 등
- 해단식(12.8) : 활동 돌아보기, 서로 작성한 기사로 풀어보는 퀴즈, 소감 공유, 수료식 등
- 함께기자단 신문 「함께 걸었던 기록」 발행



37

기사 작성 수

(취재 기사 15건, 기획 기사 14건, 올키즈스트라 페스티벌 리뷰 8건)



3

영상 작업 수

올키즈봉사단

함께걷는아이들 프로그램과 행사에서 자원봉사로 함께합니다. 함께걷는아이들 미션에 공감하며, 주요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때로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친목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2019년에는 11명이 단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3

총 자원봉사 횟수



127

총 봉사 참여 시간

미디어속 함께걷는아이들

언론



오마이뉴스_꿈에는 있는 엄마, 일어나면 없어요 2019.10.23

우리말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한글날이 있는 10월, 사회복지단체 함께걷는아이들은 제5회 창작동시대회집을 발간했다(http://www.allkidspoem.or.kr/gallery). 함께걷는아이들은 '우리 사회가 처한 기회, 교육, 문화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의 삶을 실천하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예술,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단체다.

함께걷는아이들은 올키즈스터디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은 아동이 출발 단계에서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초등학습부진 아동에게 맞춤형 읽기, 쓰기, 셈하기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이 동시대회는 지난 8월 한 달간 올키즈스터디 참여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9월 18일 수상작이 발표되었고, 이번에 동시대회집이 발간된 것이다.

올해 시제는 「나에게는 ○○(이/가) 있다, 없다」이다. 이 대회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눈에 띈 몇 편의 수상작을 소개할까 한다. (생략)



블로그



「비영리운영노트」 지배구조(이사회, 총회) 2019.5.28

「비영리운영노트」 시리즈는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이라는 중소규모의 비영리 단체들의 자발적인 모임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 함께걷는아이들의 사례에 비추고 고민과 생각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비영리를 둘러싼 규제와 법령들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NPO들이 많고, 체계적인 정보와 안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대규모 단체의 경우 각 파트마다 담당자가 따로 있어 상대적으로 체계적 운영 여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소규모의 NPO들은 사업과 운영, 회계 업무를 겸임하거나 한 명이 다양한 업무를 모두 맡고 있어 놓치거나 모르고 있는 사안들이 발생하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은 NPO가 스스로 자가 점검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여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체크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발한 초안을 바탕으로 올해는 카테고리(지배구조·재정투명성·조직구성원·정보공개및보완) 하나씩 짚어가고 있으며, 수정 중인 지표를 소개하고 함께걷는아이들 사례에 맞춘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생략)



유튜브



한국일보 프란

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내가 살고 싶은 집' 2019.9.6



오산시

오산포커스-청년맞춤제작소 in 오산 2019.11.25.



함께걷는아이들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시마노프 콜라보 연주 스케치 영상 2019.8.14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우리는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이하 “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된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법인의 재무제표는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된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를 공익법인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법인으로 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 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법인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법인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절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 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2020년 2월 17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 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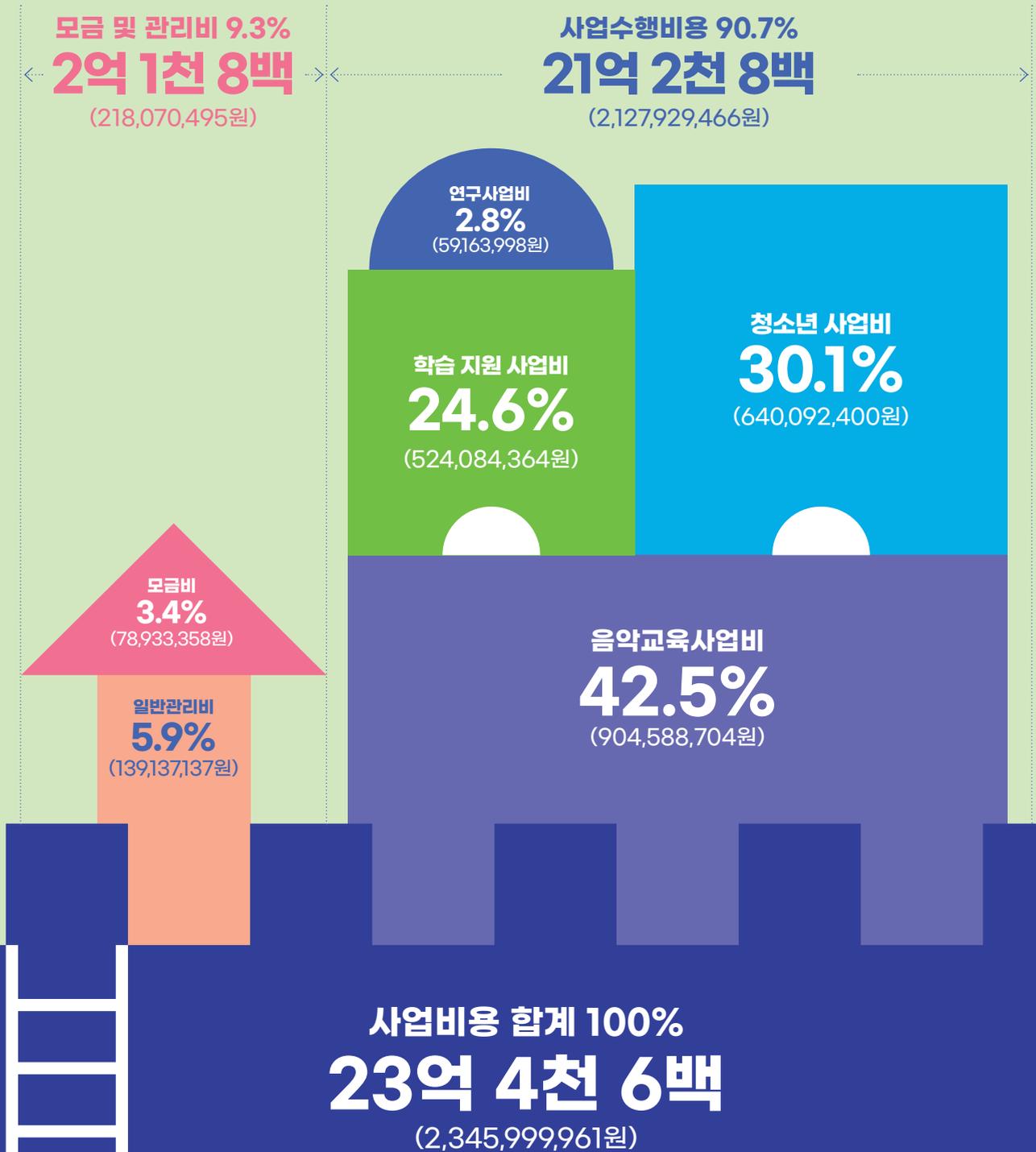
과목	제 10(당)기			제 9 (전)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산						
I. 유동자산	932,036,747	932,036,747	-	817,076,801	817,076,801	-
(1)당좌자산	932,036,747	932,036,747	-	817,076,801	817,076,801	-
현금및현금성자산	930,020,883	930,020,883	-	815,805,989	815,805,989	-
선급비용	928,354	928,354	-	877,742	877,742	-
선급법인세	1,087,510	1,087,510	-	393,070	393,070	-
II. 비유동자산	1,047,447,170	1,047,447,170	1,000,000,000	1,059,801,494	59,801,494	1,000,000,000
(1)투자자산	1,000,000,000	-	1,000,000,000	1,000,000,000	-	1,000,000,000
장기금융상품	1,000,000,000	-	1,000,000,000	1,000,000,000	-	1,000,000,000
(2)유형자산	6,185,470	6,185,470	-	12,355,794	12,355,794	-
차량운반구	131,379,500	131,379,500	-	131,379,500	131,379,500	-
감가상각누계액	(131,377,500)	(131,377,500)	-	(131,377,500)	(131,377,500)	-
비품	245,735,090	245,735,090	-	244,415,090	244,415,090	-
감가상각누계액	(239,551,620)	(239,551,620)	-	(232,061,296)	(232,061,296)	-
(3)기타비유동자산	41,261,700	41,261,700	-	47,445,700	47,445,700	-
기부자산	914,700	914,700	-	7,098,700	7,098,700	-
임차보증금	40,000,000	40,000,000	-	40,000,000	40,000,000	-
기타보증금	347,000	347,000	-	347,000	347,000	-
자산총계	1,979,483,917	979,483,917	1,000,000,000	1,876,878,295	876,878,295	1,000,000,000
부채						
I. 유동부채	86,596,730	86,596,730	-	9,411,467	9,411,467	-
미지급금	45,396,000	45,396,000	-	3,135,767	3,135,767	-
선수금	35,280,000	35,280,000	-	-	-	-
예수금	5,920,730	5,920,730	-	6,275,700	6,275,700	-
II. 비유동부채	195,220,068	195,220,068	-	169,546,136	169,546,136	-
퇴직급여충당부채	195,220,068	195,220,068	-	169,546,136	169,546,136	-
III.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1,105,929	31,105,929	-	26,591,352	26,591,35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1,105,929	31,105,929	-	26,591,352	26,591,352	-
부채총계	312,922,727	312,922,727	-	205,548,955	205,548,955	-
순자산						
I. 기본순자산	1,000,000,000	-	1,000,000,000	1,000,000,000	-	1,000,000,000
기본순자산	1,000,000,000	-	1,000,000,000	1,000,000,000	-	1,000,000,000
II. 보통순자산	666,561,190	666,561,190	-	671,329,340	671,329,340	-
잉여금	666,561,190	666,561,190	-	671,329,340	671,329,340	-
순자산총계	1,666,561,190	666,561,190	1,000,000,000	1,671,329,340	671,329,340	1,000,000,000
부채및순자산총계	1,979,483,917	979,483,917	1,000,000,000	1,876,878,295	876,878,295	1,000,000,000

운영성과표

(단위 : 원)

과목	제 10(당)기			제 9(전)기		
	총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총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I. 사업수익	2,346,946,391	2,315,840,462	31,105,929	2,296,762,452	2,270,171,100	26,591,352
기부금수익	2,255,991,762	2,255,991,762	-	2,240,975,900	2,240,975,900	-
보조금수익	8,848,700	8,848,700	-	29,195,200	29,195,200	-
이자수익	31,105,929	-	31,105,929	26,591,352	-	26,591,352
사업수익	51,000,000	51,000,000	-	-	-	-
II. 사업비용	2,345,999,961	2,345,999,961	-	2,738,140,338	2,738,140,338	-
(1) 사업수행비용	2,127,929,466	2,127,929,466	-	2,528,626,334	2,528,626,334	-
음악교육사업비	904,588,704	904,588,704	-	1,132,305,654	1,132,305,654	-
학습지원사업비	524,084,364	524,084,364	-	640,248,313	640,248,313	-
청소년사업비	640,092,400	640,092,400	-	697,896,141	697,896,141	-
연구사업비	591,639,998	591,639,998	-	58,176,226	58,176,226	-
(2) 일반관리비용	139,137,137	139,137,137	-	120,180,568	120,180,568	-
직원급여	971,869,980	971,869,980	-	79,379,875	79,379,875	-
퇴직급여	4,775,000	4,775,000	-	7,957,729	7,957,729	-
복리후생비	5,488,144	5,488,144	-	4,052,788	4,052,788	-
여비교통비	99,420	99,420	-	528,300	528,300	-
통신비	274,270	274,270	-	392,361	392,361	-
세금과공과	2,386,094	2,386,094	-	9,498,205	9,498,205	-
보험료	10,296,568	10,296,568	-	862,153	862,153	-
감가상각비	1,542,145	1,542,145	-	1,101,976	1,101,976	-
지급임차료	12,331,969	12,331,969	-	9,266,400	9,266,400	-
접대비	641,600	641,600	-	321,644	321,644	-
차량유지비	52,706	52,706	-	20,790	20,790	-
교육훈련비	-	-	-	1,544,080	1,544,080	-
도서인쇄비	9,746	9,746	-	35,100	35,100	-
회의비	499,018	499,018	-	424,953	424,953	-
소모품비	286,689	286,689	-	750,217	750,217	-
지급수수료	3,266,789	3,266,789	-	4,043,995	4,043,995	-
(3) 모금비용	78,933,358	78,933,358	-	89,333,436	89,333,436	-
급여	34,003,350	34,003,350	-	34,316,640	34,316,640	-
퇴직급여	2,825,000	2,825,000	-	3,657,298	3,657,298	-
복리후생비	1,568,041	1,568,041	-	1,621,115	1,621,115	-
세금과공과금	-	-	-	2,962,970	2,962,970	-
보험료	3,175,480	3,175,480	-	-	-	-
홍보비	31,372,303	31,372,303	-	38,619,825	38,619,825	-
기타모금비용	5,989,184	5,989,184	-	8,155,588	8,155,588	-
III. 사업이익(손실)	946,430	(30,159,499)	31,105,929	(441,377,886)	(467,969,238)	26,591,352
IV. 사업외수익	-	-	-	1,116,048	1,116,048	-
잡이익	-	-	-	1,116,048	1,116,048	-
V. 사업외비용	1,200,003	1,200,003	-	2,238,941	2,238,941	-
기부자산폐기손실	1,200,000	1,200,000	-	1,008,020	1,008,020	-
잡손실	3	3	-	1,230,921	1,230,921	-
VI.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31,105,929	-	31,105,929	26,591,352	-	26,591,352
VII.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26,591,352	26,591,352	-	27,329,975	27,329,975	-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운영이익	(4,768,150)	(4,768,150)	-	(441,762,156)	(441,762,156)	-
IX. 법인세비용	-	-	-	-	-	-
X. 당기운영이익	(4,768,150)	(4,768,150)	-	(441,762,156)	(441,762,156)	-

지출 내역



함께하는 사람들

이사회

이사장 조순실(사.들꽃청소년세상 공동대표)
이사 고병현(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류정아(한국아동음악발달연구소 소장), 양성희(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은정(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정기(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희경(前 Fairleigh Dickinson Univ. 경영학과 교수)
감사 윤선남(진일회계법인 회계사), 이민영(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무국

사무국장 유원선 **음악팀** 김현주 팀장, 오솔 매니저, 김미지 인턴, 노다지 매니저, 운영주 매니저, 유가을 자립매니저 **학습팀** 이현진 팀장, 황다운 매니저, 권혜리 인턴, 김예지 인턴 **청소년팀** 변미혜 팀장, 김시연 인턴 **청년맞춤제작소 in 오산** 광예술 매니저, 조선희 매니저, 오여진 매니저 **기획경영팀** 이선미 선임매니저, 김나희 매니저, 김정민 매니저, 심영주 프로젝트 매니저, 문다솔 인턴

올키즈스트라 멘토

김윤식(성남윈드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김지환(KBS교향악단 단원), 서지혜(인컬처 컨설팅 대표), 유형직(KBS교향악단 단원), 이명희(부천시립교향악단 단원), 정호진(콜롬비아대학교 음악교육 박사)

자문

이기홍(서울예술대학 이사장), 박주현(국회의원), 권미혁(국회의원), 홍헌호(시민사회연구소 소장), 이선철(감자꽃스튜디오 대표), 조인래(랄라고고 대표), 안정권(알트랩 코퍼운더)

홍보대사

김주원(발레리나), 김용신(아나운서), 신구(배우)

문화예술

파트너 우리들의낙원상가,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후원** 동그라미파트너스, 메디칼필 하모닉오케스트라(MPO),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우리들의낙원상가,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상위관악단 코디네이터** 김윤진, 최유미

청소년 복지

파트너 들꽃청소년세상, 인권교육센터 들, 오산시 **후원** 강·장 법률사무소,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오산시, (사)한국 도시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청년재단

교육

후원 조양래 **올키즈스터디 슈퍼바** 이저 조소영, 홍영숙, 이훈주

네트워크 활동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사회참여적음악가네트워크 SEM, 공익네트워크「우리는」

힘이 되어준 사람들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행정 지원 김윤지, 박성아, 석주성, 유지민, 이주혁 **올키즈봉사단** 강도연, 김성근, 김시연, 김의연, 박성아, 유지민, 이주혁, 이광민, 이해택, 양효진, 최승연 **함께기자단&명예기자** 길은서, 김은비, 김은지, 김하은, 박민석, 서유진, 차윤희, 최예원, 심을지, 허서진

후원자 명단

개인

강성선 강수연 강응수 강응철·노현지
 강혁 고병헌 고현주 권익상 권해린
 권해민 김경자 김규형 김금인 김나희
 김문경 김미희 김민숙 김보민 김서인
 김선규 김선혜 김성자 김성현 김순웅
 김신원 김연 김연준 김영소 김용철
 김유진 김윤진 김은총 김재현 김정아
 김정연 김정현 김종윤 김종진 김주원
 김지연 김지원 김지혜 김충만 김태우
 김현미 김현서 김현아 김현주 김현희
 김형규 김혜영 김희중 나은선 나종민
 나혜경 남기창 남인순 노근창 목갑수
 문경민 박문희 박민호 박석준 박선아
 박순성 박은희 박정숙 박해정 박희은
 배진영 백미순 백석기 서동우 석주성
 성하민 손휘경 송대섭 송재화 신민경
 신성광·임현희 신소연 신용식 신지윤
 신태숙 심현모 안상범 양윤모 오솔
 오순옥 유경재 유동혁 유양모 유용균
 유정임 유지선 윤대연 윤미자 윤세리
 이경림 이고은 이나경 이동희 이명희
 이민영 이상수 이선미 이연호 이육남
 이원재 이윤정 이인영 이재표 이정은
 이조앤 이조영 이주혁·이승한 이하민
 이호창 이효원 이훈주 이희진 임순영
 임승환 임지영 전성윤 전예숙 전은미
 전진희 전현경 전현주 정영태 정일룡
 정일우 정정숙 정진경 정찬대 정홍숙
 조경래 조경진 조성호 조재서 조재완
 조재형 조혜연 차기환 채철호 최양삼
 최연오 최우혁 최인서 최종임 최주혁
 최주희 최창희 최현서 최효자 한미라
 한윙희 함효진 허태은 홍기원 홍성필
 홍영숙 홍원표 홍정원 홍혜진

기금 후원

김호겸 추모기금_홍명자 홍문자 조현식,
 노재원·조재선 추모기금_노승우 노윤정 노정호
 노민정 조희경, 울키즈스터디 동시대회 기금_조양래,
 빛의소리희망기금_메디칼필하모닉오케스트라(MPO)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기업 및 단체

(주)다운에스디, (주)큰그림,
 경남공동모금회, 안양군포관
 악단, 한섬재능나눔장학회

기업 및 단체 100만원 이상

(사)한국도시연구소, (주)에스
 엠엔터테인먼트, (주)현일코
 프레이션, 신성일렉트로(주),
 우리은행동역삼동금융센터,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청년
 재단

개인 50만 원 이상

김경선 김성준 김영무 김영아 김은희 김재우
 김한수 김현수 김현화 김형진 김혜령 노승우 노윤정 노정호 류형호
 민승기·윤화자 박기호 박민중 박영준 박은영 백승진 변미혜 상미현
 박혜원 송지은·임현식 신경원 신동희 양미경 유권 유기형 유성문
 유수용 유원선 윤태준 이강배 이강욱 이기석 이기흠 이영렬 이지원
 이철민 이혁진 이현진 임정심 장학 정성이 정연옥 정인 조나현 조소영
 조순실 조승래 조양래 조철래 조태준 조현식 조희경 최윤 홍헌호

새악기 기부

구자병(첼로 4개), 우리들의
 낙원상가(플루트 9개, 바이올린 9개,
 우쿨렐레 12개), 적재팬클럽 적재학부모회
 (어쿠스틱기타 8개, 일렉기타 2개), 정용화 팬클럽
 (우쿨렐레 2개)

장소후원

울키즈스터라 상위관악
 단, 오니관악단 연습 장
 소 지원_한국테크놀로
 지그룹

특별후원

김.장 법률사무소_겨울
 용품(무릎담요, 버스카
 드 등) 100set, 구급키
 트 200개, 긴급 지원
 물품(물티슈, 즉석밥 등
 1,066,000원 상당)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등 50여명_청빛 해피
 빈 후원 5,064,200원,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주식회사_샌드위치 등
 빵 840개

악기 나눔 캠페인, 울키즈기프트 참여자

김란희·최석봉(피아노 1개), 김미화(바이올린 1개) 김민주(우쿨렐레 1개) 김상현
 (디지털피아노 1개), 김세윤(베이스기타, 앰프, 하드 케이스 각 1개), 김소연·이철민
 (클라리넷 1개), 김우정(클라리넷 1개), 김은호(플루트, 테너 색소폰, 소프라노 색소폰,
 보면대 각 1개), 김정미(해금 2개), 김주만(바이올린 1개) 김진백(트럼펫 7개), 김진호
 (어쿠스틱기타, 플루트 각 1개), 김희애(일렉기타, 앰프 각 1개), 남성식(피아노 1개), 민선주
 (바이올린 1개), 박미경(디지털피아노 1개), 박민규(피아노 1개), 박세진(키보드 1개), 박소연
 (피아노 1개), 박요한(일렉기타 2개, 앰프 1개), 박은영(플루트 1개), 박태성(바이올린 2개),
 발레리아(바이올린 1개), 배서영(우쿨렐레 2개, 어쿠스틱기타 1개, 칼리바 1개), 서주희
 (피아노 2개) 송경희(플루트, 보면대 각 1개), 신경선(바이올린 4개), 신민경·신민희(그랜드
 피아노 1개), 안수진(피아노 1개), 오도희(어쿠스틱기타 1개), 오미선(오카리나 10개), 오요한
 (디지털피아노 1개), 위성찬(어쿠스틱기타 1개), 유혜경(디지털피아노 1개), 윤수혁(어쿠스틱
 기타 1개), 윤식(바이올린 4개), 윤예지·신경원(첼로1개), 이동재(일렉기타 1개), 이미경·
 최종찬(피아노 1개), 이상민(베이스기타, 앰프 각 1개), 이수진(어쿠스틱기타 1개), 이정신
 (클라리넷, 플루트 각 1개), 이정진(플루트, 트럼펫 각 1개), 이해선(어쿠스틱기타 1개),
 이해진(어쿠스틱기타 1개),이홍식(바이올린, 어쿠스틱기타, 우쿨렐레 각 1개), 임지영(플루트
 2개), 장혜정(어쿠스틱기타 1개), 정지혜(피아노 1개), 정혜경(바이올린 1개), 조소연(피아노
 1개), 조수민·박민호(바이올린, 첼로 각 1개), 조윤정(플루트 2개, 리코더 7개), 조해인(첼로
 1개), 채은순(일렉기타, 플루트, 가야금 각 1개), 하성용(어쿠스틱기타 3개, 일렉기타 1개,
 앰프 1개), 한기성(플루트, 어쿠스틱기타, 보면대 각 1개), 한신영(바이올린 3개), 한지윤
 (피아노 1개, 바이올린 2개), 허수정(첼로 1개, 교본), 홍성호(디지털피아노 1개)



후원 안내

함께걷는아이들은 기부자님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함께 걷는 아이들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에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정기 후원



후원금 사용 내용

- 문화 소외 아동 지원 : 환경에 상관없이 문화예술을 경험하도록 음악교육 지원
- 기초학습 부진 아동 지원 : 방임이나 경제적 어려움에도 잠재능력 발휘하도록 일대일 학습 지원
- 청소년 자립 지원 : 긴급 구조, 청소년 주체성 확립, 안전망 구축으로 청소년 자립 지원

후원자님께 드리는 예우

- 후원에 대한 감사 카드(첫 후원, 3주년, 10주년 등) 발송
- 후원금 사용 정보가 담긴 정기우편물과 뉴스레터 발송
- 기부금영수증 발급
- 행사(올키즈스트라 정기연주회 등) 초청

악기 기부



음악을 배우고 싶지만 악기가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아동복지기관(시설) 아이들에게 기부 받은 악기를 선물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중고 악기, 새 악기를 기부해주세요.

- 특별한 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악기 기부도 가능합니다.
- 올키즈기프트 홈페이지에서 기부 사연과 악기 나눔 후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 후원 문의

함께걷는아이들 기획경영팀
02-522-7935
contact@withu.or.kr
우리은행 1005-301-695567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www.withu.or.kr

정기후원 신청은 함께걷는아이들 홈페이지 '후원' 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악기 기부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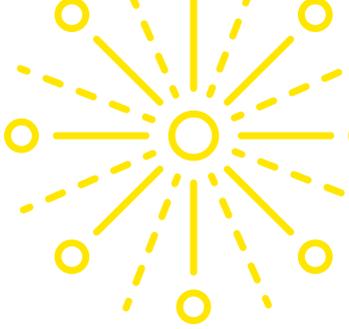
함께걷는아이들 기획경영팀
02-522-7935
allkidsgift@withu.or.kr



www.allkidsgift.or.kr

자세한 사항은 올키즈기프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0주년 이벤트



2020년에 창립 10주년이 된 함께걷는아이들을 축하해주세요!

아래의 10주년 이미지를 촬영하고, 축하 글과 함께 SNS에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10주년 감사 특별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1. 아래의 축하 이미지 촬영하기
2. 촬영한 사진과 10주년 축하 메시지,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전체 공개로 등록하기

- 해시태그 : #함께걷는아이들10주년축하해
- SNS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참여 기간 : 2020년 6월 30일까지 / 당첨자 발표 : 2020년 7월 중

